

# 노인의 독립적 삶의 기대감이 세대 간 자원 하향이전에 미치는 영향 연구

강 유 경\*

(성균관대학교)

박 승 희\*\*

(성균관대학교)

## [요 약]

본 연구는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노년기 독립적인 삶의 기대감과 노인의 하향이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토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2008년도 전국 노인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자료이며, 자료분석은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노인의 독립적인 삶의 기대감 정도는 노인의 하향이전 정도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으로 경제적·신체적 독립적인 삶의 기대감은 노인의 경제적·서비스 하향이전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심리적 독립적인 삶의 기대감은 노인의 서비스 하향이전에는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경제적 하향이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독립적인 삶의 기대감, 노인의 하향이전, 경제적 하향이전, 서비스 하향이전

## 1. 서론

노인과 성인자녀 사이의 관계에서는 일생동안 자원의 상호 이전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부모가 나이가 들면서 경제적·신체적 의존성이 증가하는 노년기 특성 때문에 사람들은 대부분 노

\*

\*\* ??????????????????

인에서 자녀로의 자원이전(노인의 하향이전)보다는 자녀에서 노인으로의 지원(support)이나 부양과 같은 자녀에서 노인으로의 자원이전(자녀의 상향이전)에 관심을 갖는다. 특히, 우리나라 노인들은 공적 이전보다는 주로 사적 이전 즉 자녀로부터의 지원에 의존해왔기 때문에 자녀의 경제적·심리적 지원인 상향이전을 당연하게 여겨 왔다.

그러나 최근 일어나고 있는 국가정책의 변화, 인구학적 변화, 노동시장의 변화, 노인을 바라보는 관점 및 세대 간 가치관의 변화들로 인해 세대 간 자원이전의 모습 또한 변화가 예상된다. 국가정책적 변화로는 1980년대 대부분의 국가들이 재정위기를 겪으면서 노년기의 의존을 정치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래서 노인들의 독립을 촉진시킴으로써 의존의 발생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여 노인 정책에서 노인의 '독립'과 '자립'을 강조하고 있다. 2002년 마드리드 고령화국제행동계획(Madrid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에서도 이런 추세에 따라 노인들의 적극적인 사회참여와 노동시장참여를 강조하고 있으며(보건복지부, 2002), 우리나라에서도 주요 노인 정책 제안보고서에 '독립' 또는 '자립'이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되고 있다(이가옥·우국희·최성재, 2004). 그리고 평균수명의 증가와 출산율의 감소, 이혼율과 재혼율의 증가, 여성들의 노동시장참여 증가, 취업률과 고용안정성의 감소 등으로 인한 부양제공자의 감소와 자녀의 불투명한 경제적 지위획득은 노인들이 자녀로부터 지원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으로 만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노인의 하향이전의 필요성을 점점 증가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효 사상에 대한 세대 간 가치기준의 변화는 부모가 자녀에게 갖는 부양기대의 수준과 자녀가 부모에게 갖는 부양 의무의 차이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노인을 수동적으로 지원을 받기만하는 수혜자에서 잠재력과 문제해결 능력 및 강점을 가진 존재로 보려는 시각의 변화 또한 일어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자녀와 함께 살지 않는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실제로 부모와 자녀가 동거하는 비율은 2002년 42.7%에서 2010년 35.3%로 감소한 반면, 부모만 따로 살고 있는 경우는 2002년 56.7%에서 2010년 62.8%로 증가하는 추세이다(통계청, 2010). 그리고 60세 이상 노인의 약 70%가 '노후에 자녀와 동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강이 악화되거나 혼자 살게 될 경우 양로시설이나 실버타운 등을 이용하겠다는 비율도 각각 71.8%와 69.3%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국토연구원, 2008).

이러한 모든 변화들을 종합해 볼 때, 현세대 및 미래세대의 노인들은 과거 세대의 노인들에 비해 노년기를 좀 더 주체적으로 살아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을 뿐만 아니라, 보다 독립적으로 노년기를 보내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노인들은 자녀로부터의 상향이전을 점점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 되어 가고 있으며 오히려 자녀들에게 하향이전을 해주어야 하는 입장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상황은 노인들의 독립적인 삶에 대한 관심 및 독립적인 삶에 대한 기대감 또한 점점 증가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노년기 독립적인 삶의 기대감은 과연 노인의 하향이전을 증가시킬 것인가? 여기에 답하는 것은 노인복지정책의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기초 정보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물론 노인들의 세대 간 이전에

대한 연구는 적지 않은 편이다. 세대 간 이전에 대한 연구는 세대 간 이전의 형태 및 요인에 관한 연구(Cox, 1987; Macdonald, 1989; Freeman, Wolf, Soldo and Stephen, 1991; Cox and Rank, 1992; Soldo and Hill, 1995; Hermalin, 1999; Mehta, 1999; Frankenberg, Lillard and Willis, 2002; 고선강, 2005; 김진, 2008)와 노부모와 성인자녀 사이의 세대 간 이전이 노인들의 심리적 안녕감이나 만족도 및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연구가 있다(Lee and Ellithore, 1982; Mutran and Reitzes, 1984; Lee, Netzer and Coward, 1995; 김정석·김익기, 2000). 이들 연구들의 특징은 초기 경제적 자원의 이전을 다루는 연구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양쪽 방향(노인의 하향지원과 자녀의 상향지원)의 자원이전을 모두 다루고 있다. 세대 간 자원이전이 한 방향일 수 없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양방향의 자원이전 흐름을 다 살펴보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일생동안 이루어지는 세대 간 자원의 이전을 모두 살펴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이에 대한 정보를 줄 수 있는 자료를 구하는데도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하나의 연구에 양방향의 세대 간 이전을 모두 다룰 경우 한번에 많은 내용을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중요한 정보를 간과할 수도 있으며 오히려 연구가 단순화될 수 있다. 따라서 양방향의 세대 간 이전 연구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연구 주제에 합당하게 자녀의 상향이전 또는 노인의 하향이전에 초점을 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노인들의 독립적인 삶의 기대감과 관련하여 세대 간 이전을 다루려고 하고 있고 노인의 보다 주체적인 자원이전을 살펴보고자 하기 때문에 노인의 하향이전에 초점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더군다나 노인들의 '독립'과 관련된 연구가 희귀한(Secker, Hill, Villeneau and Parkman, 2003; Plath, 2009; 이가옥우국회·최성재, 2004) 상황에서 노인들의 독립적인 삶의 기대감이 노인의 하향이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더욱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노인들의 독립적인 삶의 기대감이 증가하는 현실 변화와 그간의 노인복지학 분야의 연구 성과를 감안하여 볼 때, 노인들의 독립적인 삶의 기대감과 자녀로의 자원 하향이전의 관련 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노년기 독립적인 삶의 기대감이 노인의 하향이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것이며 특히, 최근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는 인구학적 추세를 고려하여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65세 이상 노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2. 이론적 검토

### 1) 노년기 독립적인 삶에 대한 기대감

#### (1) 노년기 독립적인 삶의 의미

노년기 독립적인 삶은 사회정책 측면에서 많은 관심을 받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개념이 정립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독립적인 삶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유지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 노년기 독립적인 삶의 의미

는 사회적·정치적·경제적 맥락과 노인을 바라보는 가치와 태도에 의해 다차원적으로 형성되는 경향이 있다(Plath, 2009). 지금까지 사회정책 영역에서는 독립적인 삶을 자율성, 자족, 신체적 자립의 의미로 주로 사용해 왔다. 자율성은 노인들에게 보다 많은 선택권과 결정권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하며, 자족은 경제적 자립을 의미하는 것으로 노인의 적극적인 노동시장 참여를 통해 경제적 기여를 증대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다. 그리고 신체적 자립은 노인들의 신체적 건강 유지를 통해 신체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인 생활을 지속시키는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이가옥 외, 2004). 그런데 이와 같은 사회정책 측면에서의 독립적인 삶의 개념은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연령이 높고 장애 및 질병에 취약한 노인은 배제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Plath, 2008; 이가옥 외, 2004). 따라서 노인의 독립적인 삶은 사회정책 측면에서가 아니라 노인자신의 입장에서 바라본 독립적인 삶의 의미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 타당하다.

우리나라 노인들을 대상으로 독립적 삶의 의미를 조사한 질적 연구에 따르면 개인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노인들은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전제 조건으로 건강, 경제력, 배우자, 친구, 일을 꼽았으며 특히 경제력과 건강, 친구는 모든 노인들에게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거론되었다(이가옥 외, 2004). 또한 노인들에게 독립적인 삶의 의미는 사생활, 자존감, 자율성, 자유 등의 개념과 연관되어 다양한 차원에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Secker et al., 2003; 이가옥 외, 2004).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노년기의 독립적인 삶은 자립(self-reliance)뿐만 아니라 자존감(self-esteem), 자기결정(self-determination), 자아성장(self-growth) 등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의미를 고려하여 인식될 필요가 있다(Secker et al., 200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노년기 독립적인 삶의 다차원적인 의미를 토대로 우리나라 노인들의 독립적인 삶의 기대감을 경제적·신체적·심리적 독립적인 삶의 기대감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경제적 독립적인 삶의 기대감은 노인들이 경제적 자립을 통해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려는 것으로 노인들이 근로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로 볼 수 있다. 신체적 독립적인 삶의 기대감은 노인들이 신체적 건강 유지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는 생활을 조금이라도 오래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결국 운동과 같은 건강관리를 통해 질병을 예방하여 조금이라도 노화를 늦추고 오랫동안 건강한 삶을 유지하려는 의지를 말하는 것이다. 또한 심리적 독립적인 삶의 기대감은 자존감, 자율성, 자유와 연관된 것으로 자신의 생활방식이나 사생활을 존중 받으며 연장자로서 인정받고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여 해결 하고자 하는 의지를 말한다고 볼 수 있다(Secker et al., 2003; 이가옥 외, 2004).

## (2) 노년기와 독립적인 삶에 대한 기대감

노년기의 독립적인 삶은 사회정책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노인 개인들 사이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우선, 사회정책적 측면에서는 노인들의 독립적인 삶을 촉진시킴으로써 노년기 의존의 발생을 예방하여 인구고령화로 인한 공적지출의 증가를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요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다. 뿐만 아니라 노인들을 수동적으로 받기만 하는 존재로 바라보는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에서 벗어나 능동적으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존재로 보려는 임파워먼트 움직임

으로 인해 노인들의 독립적인 삶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여 왔다. 노인 개인 측면에서는 노년기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노인들의 독립적인 삶에 대한 기대감 또한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노년기 독립적 삶의 기대감은 노인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이끌어 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인들의 사회활동 참여를 유도해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노인들의 사회활동 참여는 노년기에 나타날 수 있는 심리 및 신체적인 문제들을 완화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노년기 삶의 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실제 연구에서도 노인의 여가 및 사회활동 참여가 고독 및 우울감, 분노, 정서적 스트레스를 경감시켜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Hunter and Linn, 1981; Peggy and Lyndi, 2001; Kondo, Kazama, Suzuki, and Yamagata, 2008; Sirven, and Dedrand, 2008; 윤혜진, 2001; 우순애, 2002; 최성재·장인협, 2006; 신성은, 2007; 박자영, 2008; 배진희, 2009; 권현수, 2009). 그러므로 노년기 독립적인 삶에 대한 기대감은 사회정책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노인 자신에게 중요한 관심사가 될 수 있다.

## 2) 노부모와 성인자녀 간의 세대 간 자원이전

### (1) 세대 간 이전의 개념

세대 간 이전은 공간(space), 시간(time), 금전(money) 등의 요소들과 그 세대 안에 포함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결합하여 일어나는 복잡한 과정으로 볼 수 있다(Hermalin, 1999). 노부모와 성인 자녀 세대 간에는 물질적·시간적 자원의 직접적·간접적 이전이 일생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때 물질적 자원의 이전은 주로 돈이나 선물 등과 같은 금전 및 현물 이전을 말하는 반면, 시간적 자원의 이전은 병간호 및 가사일 지원과 같은 신체적·도구적·정서적 지원, 그리고 손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과 같은 서비스 자원의 이전을 말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물질적 자원을 경제적 자원으로, 시간적 자원은 서비스 자원으로 명명하여 살펴볼 것이다.

### (2) 노부모에서 성인자녀로의 하향이전

세대 간의 자원이전은 단순히 자원이 이전되는 현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이 어느 곳에서 어느 곳으로 흘러가는지 그 흐름의 방향까지도 포괄하고 있는 용어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원이전 방향의 혼돈을 피하기 위해 성인자녀에서 노부모로의 자원이전을 '자녀의 상향이전'으로, 노부모에서 성인자녀로의 자원이전을 '노인의 하향이전'으로 부르코자 한다.

노부모와 성인자녀 사이의 세대 간 이전을 다룰 때에는 '자녀의 상향이전'과 '노인의 하향이전' 중 어떤 것을 중심으로 볼 것인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외국의 세대 간 이전의 연구를 보면 금융자산과 같은 경제적 자원의 이전을 다루는 경우에는(Cox, 1987; Macdonald, 1989; Cox and Rank, 1992; Soldo and Hill, 1995) 부모의 경제적 하향이전을 중심으로 연구해온 반면, 서비스 자원의 이전인 경우에는 자녀의 상향이전에 중점을 둔 연구가 많다(Freeman, Wolf, Soldo and Stephen, 1991; Marks, 1996). 그리고 최근에는 세대 간 자원이전을 쌍방향에서 보려는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Grundy, 2005), 노부모와 성인자녀 사이의 세대 간 이전이 노인들의 심리적 안녕감이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경우에는(Lee and Ellithore, 1982; Mutran and Reitzes, 1984; Lee, Netzer and Coward, 1995) 주로 세대 간 이전을 양쪽 방향에서 다루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세대 간 이전의 초기연구들은 자녀의 상향이전을 중심으로 자원이전을 주로 살펴보았으며 최근 연구들의 경향은 노인이 일방적으로 지원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도 자녀에게 지원을 제공한다는 인식하에 양쪽방향의 자원이전을 모두 살펴보고 있다(김정석·김익기, 2000; 한민아·한경혜, 2004; 정경희, 2005; 정병은, 2007; 보건복지가족부, 2009).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정리해 보면, 외국의 경우에는 특히 55세-75세 노인의 경제적 하향이전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Grundy, 2005),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체로 자녀의 경제적 상향이전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한민아·한경혜, 2004; 정경희, 2005; 정병은, 2007). 복지조사자료에 의하면 노인의 경제적 하향이전은 20.6%, 자녀의 경제적 상향이전은 74.4%로 나타났다(보건복지가족부, 2009). 그리고 정서적 지원과 같은 서비스 자원의 이전은 노인의 하향이전과 자녀의 상향이전이 모두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정석·김익기, 2000; 정경희, 2005; 정병은, 2007; 김진, 2008). 복지조사자료에서도 또한 노인의 정서적 하향이전은 73.2%, 자녀의 정서적 상향이전은 77.1%로 나타나 노인과 자녀사이에 정서적 지원의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보건복지가족부, 2009). 노인의 하향이전과 자녀의 상향이전이 동시에 일어나 지원을 서로 주고받는 경우가 노인이 일방적으로 지원을 받기만 하는 경우보다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정석·김익기, 2000).

최근 노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보면 노인들을 수동적으로 지원을 제공받기만 하는 수혜자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잠재력과 강점을 가진 존재로 보려는 임파워먼트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도 현세대의 노인들은 과거 세대의 노인들에 비해 교육수준과 건강수준이 높고, 과거와는 달리 강한 독립적인 성향과 다양한 욕구를 가진 계층으로 성장하고 있다(Myers, 1988; 장인협·우국희, 2007). 이러한 노인을 바라보는 관점 및 노인계층의 변화는 과거 세대 노인들의 하향이전 양상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회의 변화로 인해 과거에는 인생의 기회나 경제적 지위의 이전이 가족 내에서 직접적으로 이루어졌지만(Kohli, 1999),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인생의 기회나 경제적 지위를 개인의 노동시장 참여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게 되었다. 그렇지만 점점 늘어나고 있는 교육기간이나 사교육비용에 비해 취업률이 낮고 고용이 불안정해서 자녀들의 경제적 지위 획득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과거 노인들을 주로 부양하던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가 증가하면서 노인들은 부양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손 자녀 양육에 도움을 주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김태현, 2000; 윤정자, 2003).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해 볼 때, 노인의 하향이전의 필요성은 점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치관의 변화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효' 사상마저도 아래 세대로 내려갈수록 가치 기준이 달라지고 있어서 부모가 자녀에게 기대하는 부양의무의 수준과 자녀가 부모에게 갖는 부양의무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윤정자, 2003).

이러한 모든 변화들을 종합해 볼 때, 노인들은 자녀로부터의 상향이전을 점점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 되어 가고 있으며 이로 인해 현세대 및 미래세대의 노인들은 과거 세대의 노인들보다 노년기를 좀 더 주체적으로 살아야 하는 입장에 처해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녀들을 도와주기위해 하향이전을

해야 하는 입장이 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연구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노인의 하향이전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를 노인의 독립적인 삶의 기대감과 연관시켜 논의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합당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하향이전을 중심으로 노인의 독립적 삶의 기대감과 연관시켜 살펴보고자 한다.

### 3) 노인의 독립적인 삶의 기대감과 성인자녀로의 하향이전

#### (1) 선행연구 검토

지금까지 노년기 독립적인 삶의 기대감과 노인들의 하향이전을 다룬 연구들은 미비한 편이며, 몇몇 세대 간 지원을 다룬 연구와 노인복지실태조사 보고서에서 노인들의 하향이전을 살펴보고 있을 뿐이다.

세대 간 지원을 다룬 연구에 의하면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에게 경제적 하향이전을 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McGarry and Schoeni, 1997; McGarry, 1999; Pezzin and Shone, 1999), 부모와 자녀가 지리적으로 가까이에 거주할수록 자녀에게 경제적 하향이전을 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Cox and Rank, 1992; McGarry and Schoeni, 1997; McGarry, 1999; 민기채, 2008).

우리나라 노인의 경제적 하향이전은 남자노인 23.1%, 여자노인 18.7%, 일상생활수행능력에 제한이 없는 노인 22.5%, 일상생활수행능력에 제한이 있는 노인 14.3%, 취업하고 있는 노인이 40.9%, 취업하고 있지 않은 노인 9.8%가 경제적 하향이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여자노인보다는 남자노인이, 일상생활수행능력에 제한이 없을수록, 취업하고 있는 경우에 경제적 하향이전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가족부, 2009). 그리고 노인의 연령이 낮을수록 경제적 하향이전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가족부, 2009). 정서적 하향이전의 경우에는 65-69세 노인의 경우 74.7%에서 85세 이상 노인은 51.0%, 일상생활수행능력에 제한이 없는 노인 76.1%, 제한이 있는 노인 63.5%로 연령이 적고, 신체기능에 제한이 없는 노인이 정서적 하향이전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가족부, 2009). 또한 도구적 하향이전은 여자노인이 27.4%, 남자노인 16.0%, 일상생활수행 능력에 제한이 없는 노인이 25.0%, 제한이 있는 노인 14.6%가 도구적 하향이전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 여자노인이면서 신체기능에 제한이 없는 노인일수록 도구적 하향이전을 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가족부, 2009). 그리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도구적 하향이전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하향이는 여자노인이 23.7%, 남자노인 18.4%, 일상생활수행 능력에 제한이 없는 노인이 23.5%, 제한이 있는 노인 14.6%가 신체적 하향이전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 여자노인이면서 신체기능에 제한이 없는 노인일수록 신체적 하향이전을 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가족부, 2009). 따라서 위의 연구결과들을 볼 때, 노인의 취업과 연관되어 있는 경제적 독립적인 삶의 기대감과 노인의 신체적인 수행능력과 관련된 신체적 독립적인 삶의 기대감은 노인의 하향이전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는 반면, 노인들의 심리적 독립적인 삶의 기대감 측면과 관련된 노인의

하향이전 연구는 찾기 힘들기 때문에 단정지어 말하기 힘들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에서 종교, 여가 및 사회활동이 노인들의 자아실현, 자존감 및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켜 줌으로써 노인들의 생활만족도 및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는 것을(Ellison, 1991; Koenig, 1993; Clark, Long and Schiffman, 1999; 윤종주, 1994; 권중돈·조주연, 2000; 양순미·홍성례·홍숙자, 2004; 김미령, 2005; 김옥, 2006; 배나래·박충선, 2009) 감안할 때, 노인들의 자율성이나 자존감, 자아실현과 관련되어 있는 심리적 독립적인 삶의 기대감 또한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 및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삶의 질이나 삶의 만족도는 부모-자녀 유대관계가 좋을수록 높은 경향이 있기 때문에(Medley, 1976; 김종숙, 1987; 원영희, 1995; 김유경, 2000), 노인들의 자아실현, 자존감 및 사회기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심리적 독립적인 삶의 기대감 또한 삶의 질이나 삶의 만족도 뿐만 아니라 자녀와의 유대관계에도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 일반적으로 노인의 하향이전은 노인과 자녀사이에서 주로 일어나는 자원의 이전행동이기에 때문에 자녀와의 유대관계는 노인의 하향이전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해볼 수 있다. 따라서 앞의 논의들을 종합해 볼 때, 노년기 심리적 독립적인 삶의 기대감은 노인의 하향이전을 증가시킬 것이다. 이 밖에도 노인의 배우자 유무, 종교 활동 및 경제적 수준과 성인자녀의 성별, 연령, 경제상태 및 고용상태 등이 일반적인 세대 간 자원이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Dwyer and Coward, 1991; Cox and Rank, 1992; Marks, 1996; McGarry and Schoeni, 1997; 서병숙·장선주, 1990; 조병은·신화용, 1992; 민무숙, 1995; 박경숙, 2003; 윤현숙, 2003; 한민아, 2004; 정일영, 2008).

## (2) 관련이론

노인의 독립적인 삶에 대한 기대감이 세대 간 하향이전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는 교환이론과 이타주의 이론에서 찾아볼 수 있다.

### ① 교환이론

교환이론은 1960년대 Homans, Blau, Emerson 등과 같은 사회학자들에 의해 체계화 된 이론으로 상호호혜성(reciprocity)의 원리에 근거하여 사회적 상호작용을 행위자들이 물질적·비 물질적 보상을 서로 주고받는 교환과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Turner, 1986). 따라서 행위자가 서로에게 동일한 정도로 의존하게 될 때는 균형적인 교환관계가 성립된다고 본 반면, 한 행위자가 다른 행위자에게 더 많이 의존할 경우에는 권력의존관계가 형성되면서 형평성에 관련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교환이론에 근거하여 노인들의 독립적인 삶에 대한 기대감이 자녀로의 하향이전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해보면 노인들의 독립적인 삶에 대한 기대감이 높을수록 노인들은 자녀로부터의 상향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낮을 것이므로 자녀들에게 이전하는 경제적·서비스 하향이전이 감소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② 이타주의이론

노인과 성인자녀 사이의 세대 간 자원이전을 다룬 연구들이 교환이론 다음으로 취하고 있는 입장이 이타주의 이론적 관점이다. 교환이론으로는 소득이나 자산이 적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부모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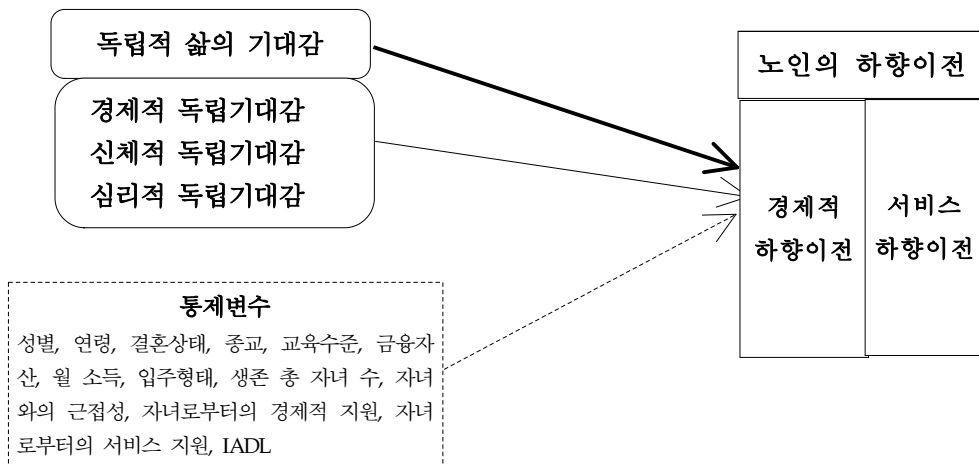


오히려 자녀들의 상향이전이 증가하는 실증적인 결과(Frankenberg, Lillard and Willis, 2002)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가족 간 자원 이전 행위를 설명해주는 이타주의 이론은 Becker(1981)에서 시작 되었는데 사람들은 시장에서의 교환에 있어서는 이기적이지만 가족 간 행위에 있어서는 이타적인 행동을 한다고 하였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이타적인 한 가족구성원의 효용함수를 가정하였다. 이때 이타적인 한 가족구성원의 효용함수는 다른 가족 구성원의 효용함수로 구성되기 때문에 한 가족 구성원이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소득을 자신이 모두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보다 소득이 적은 가족구성원에게 이전하여 그 사람의 효용을 높여야 한다고 본다. 이런 관점에서 노인의 하향이전은 자녀가 어렵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일어날 것이다. 우리나라 저소득 노인들의 성공적 노화(Successful aging)에 관한 연구를 보면, 성인자녀들의 성공은 우리나라 저소득 노인들의 성공적 노화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Chung and Park, 2008). 이러한 연구 결과와 이타주의 이론을 연결시켜 볼 때, 노인들은 자녀의 성공을 위해 필요하다면 자녀의 부양부담감을 줄여주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것은 독립적인 삶의 기대감을 높일 뿐만 아니라 노인들의 하향이전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관점이 노년기 독립적인 삶의 기대감과 노인의 하향이전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설명해 준다고 볼 수는 없지만 간접적이거나 이 둘의 관계를 설명해 준다고 볼 수 있다.

#### 4) 분석과제

앞에서 선행연구, 교환이론 및 이타주의 이론을 통해 노인의 독립적인 삶의 기대감이 노인의 하향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들의 독립적 삶의 기대감이 노인의 경제적·서비스 자원의 하향이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그림 1> 연구모형

### 3. 연구방법

#### 1) 분석자료

본 연구에서는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노인의 독립적인 삶에 대한 기대감이 노인의 하향이전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노인들의 생활전반과 자녀들에 대한 지원관련 자료 및 노인들의 독립적인 삶의 기대감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는 최근 우리나라 노인들을 대상으로 생활과 건강 및 복지에 대해 조사한 『2008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 자료는 전국 일반조사구에서 추출한 표본 조사구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2008년 8월 11일부터 2009년 1월 10일까지 조사된 것으로 최종적으로 전국 기준 12,567 가구의 노인 15,146명과 동거자녀 2,698명이 조사되었다. 조사형태는 크게 노인가구 조사, 노인개인 조사, 동거자녀 조사로 구성된 기초조사와 허약노인에 대한 부가조사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년기 독립적인 삶의 기대감이라는 변수의 특성과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노인들의 증가와 같은 인구학적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65세 이상의 노인 9847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 2) 변수 정의 및 측정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는 '노인의 하향이전'이며 독립변수는 '노인의 독립적 삶에 대한 기대감'이다. 노인의 하향이전에는 노인에서 자녀로의 경제적 자원이전과 서비스 자원이전이 포함된다. 경제적 자원이전은 정기적·비정기적 현금 및 현물 지원 여부를 통해, 서비스 자원이전은 정서적 지원, 도구적 지원, 신체적 지원을 통해 살펴볼 것이다.

##### (1) 종속변수 : 노인의 하향이전

노인의 하향이전에는 노인에서 자녀로의 경제적 자원이전과 서비스 자원이전이 포함된다. 경제적 자원이전 정도는 노부모가 성인자녀에게 지난 한 해 동안 용돈, 병원비, 생활비 지원 등의 목적으로 대가 없이 준 정기적·비정기적 현금 및 현물 지원여부를 통해 살펴보았으며 점수의 범위는 0점에서 3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한다. 서비스 자원이전 정도는 4점 Likert 척도로 측정된 정서적·도구적·신체적 지원점수를 합산한 평균점수로 살펴보았다. 정서적 지원 정도는 노인들이 비 동거 자녀 또는 그 자녀의 배우자에 고민이나 걱정거리를 들어주는 정도로, 도구적 지원 정도는 노인들이 비 동거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에게 청소 식사준비, 세탁 등의 도움을

제공한 정도로, 신체적 지원 정도는 노인들이 비 동거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가 아플 때 간병, 수발, 병원동행 등의 도움을 제공한 정도로 파악하였다. 점수의 범위는 1점에서 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노인에서 자녀로의 서비스 자원이전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 (2) 독립변수 : 독립적인 삶의 기대감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노인의 독립적 삶의 기대감 정도는 경제적·신체적·심리적 독립적인 삶의 기대감 정도를 통해 살펴보았으며 이 세 가지 항목은 다음과 같이 측정하였다. 경제적 독립적인 삶의 기대감 정도는 근로활동에 대한 희망 정도를 5점 척도로 조사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경제적 독립적인 삶의 기대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신체적 독립적인 삶의 기대감 정도는 건강유지 및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저·중·고 신체활동 정도로 조사하였다. 저강도(가벼운 신체활동으로 천천히 걷기), 중강도(빠르게 걷기, 탁구, 배드민턴 같은 숨이 약간 가쁜 정도의 신체활동), 고강도(숨이 많이 가쁜 격렬한 신체활동, 달리기, 줄넘기, 빠른 수영, 에어로빅 등) 운동의 주당 횟수를 5점 척도로 측정할 것을 평균하여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신체적 독립적인 삶의 기대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심리적 독립적인 삶의 기대감 정도는 노인들의 생애태도, 자존감, 자유, 자아실현, 자신감에 대한 생각을 5점 척도로 측정할 것을 평균하여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독립적인 삶의 기대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 (3)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는 세대 간 이전에 관한 선행연구를 통해 노인의 하향이전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성별, 연령, 결혼상태, 종교, 교육수준, 금융자산, 월 소득 총액, 입주형태, 생존 총 자녀수, 자녀와의 근접성, 자녀로부터의 경제적 지원, 자녀로부터의 서비스 지원, IADL(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를 통제변수로 하였다.

성별은 남자를 기준으로 더미화하였고(0=남자, 1= 여자), 연령은 조사당시 만 연령을 이용하였다. 결혼상태(배우자 유무)는 미혼, 별거, 이혼, 사별 또는 실종은 배우자 가 없는 것으로 측정하였다(배우자 없음=0, 배우자 있음=1). 종교는 종교가 없음을 기준으로 더미화하였고(0=종교없음, 1=종교 있음), 교육수준은 무학(글자해독불능), 무학(글자해독가능),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 4년제 대학교, 대학원 석사, 대학원 박사이상으로 측정되었다.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소유 여부로 측정되었으며(0=없음, 1=있음), 월 소득은 월 소득 총액으로, 입주형태는 자가, 전세, 월세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생존 총 자녀수는 현재 생존하고 있는 총 자녀수로, 자녀와의 근접성은 연락빈도 및 왕래빈도가 많은 자녀와의 거주지 거리로 측정되었는데 구체적으로 '걸어서 10분 이내', '걸어서 10분 이상 30분 이내', '자동차로 30분 이내', '자동차로 30분 이상 1시간 이내', '자동차로 1시간 이상 2시간 정도', '자동차로 2시간 이상 3시간 정도', '자동차로 3시간 이상', '해외 거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자녀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은 정기적·비정기적 현금 및 현물 지원여부로 살펴보았으며 자녀로부터의 서비스 지원은 4점 Likert 척도로 측정된 정서적·도구적·신체적 지원점수를 합산한 평균점수로 살펴보았다. IADL은 3점 Likert 척도로 측정된 7개 문항(몸단장, 집안일, 식사준비, 빨래, 약챙겨먹기, 금전관리,

근거리외출)의 평균점수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수행능력이 낮아짐을 의미한다.

### 3) 분석 방법

가설 검증을 위해 본 연구는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검증 등을 실시하였으며 독립변수인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노인의 독립적 삶의 기대감 정도가 종속변수인 노인의 하향이전 정도에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때 SPSS 17.0을 활용하여 통계처리하였다.

## 4. 연구결과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인 65세 이상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노인의 일반적 특성은 아래와 같으며 <표 1>로 정리하였다.

성별은 전체 9847명 중 남자가 4165명(42.3%), 여자가 5682명(57.7%)으로 여자가 더 많았고, 연령은 65세부터 100세까지 분포하며 평균 72.75세로 나타났다. 결혼상태를 보면, 배우자가 없는 노인이 3738명(38.0%), 배우자가 있는 노인이 6109명(62.0%)으로 배우자가 있는 노인이 더 많았고, 종교는 종교가 없는 노인이 3842명(39.0%), 종교가 있는 노인이 6005명(61.0%)으로 종교가 있는 노인이 더 많았다.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수준이 3854명(39.1%)로 가장 많았으며,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을 소유하지 않은 노인이 6976명(70.8%)으로 금융자산을 소유한 노인 2871명(29.2%)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 소득은 평균이 57.02만원이었으며 소득이 50만원 미만인 사람이 6111명(62.1%)으로 가장 많았다. 입주형태는 월세로 사는 노인이 8483명(86.1%)으로 가장 많았으며 생존 자녀수는 1명에서 12명까지의 범위에 있었으며 4-6명인 경우가 5750명(58.4%)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와의 근접성은 연락빈도가 가장 많은 자녀와의 거주지 거리와 왕래빈도가 가장 많은 자녀와의 거주지 거리 모두 '자동차로 30분 이내'가 각각 2027명(20.6%), 2399명(24.4%)으로 가장 많았다. 자녀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은 자녀들이 주로 비정기적 현금지원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로부터의 서비스 지원은 자녀들이 노인들에게 정서적·도구적·신체적 지원을 대체로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ADL(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은 완전자립이 8966명(91.1%)으로 나타나 대체로 노인들이 혼자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인	범주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자	4165	42.3	
	여자	5682	57.7	
연령	65세 - 74세	6588	66.9	
	75세 - 84세	2801	28.4	
	85세 - 94세	442	4.5	
	95세 이상	16	0.2	
결혼상태 (배우자유무)	배우자 없음	3738	38.0	
	배우자 있음	6109	62.2	
종교	종교 없음	3842	39.0	
	종교 있음	6005	61.0	
교육수준	무학(글자해독불가능)	1539	15.6	
	무학(글자해독가능)	1825	18.5	
	초등학교	3854	39.1	
	중학교	1153	11.7	
	고등학교	940	9.5	
	전문대학	103	1.0	
	대학교	389	4.0	
	대학원 석사 대학원 박사	34 10	0.3 0.1	
금융자산	금융자산 없음	6976	70.8	
	금융자산 있음	2871	29.2	
월 소득	50만원 미만	6111	62.1	
	51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2098	21.3	
	101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1190	12.1	
	201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287	2.9	
	300만원 이상	161	1.6	
입주형태	자가	639	6.5	
	전세	725	7.4	
	월세	8483	86.1	
생존 자녀 수	1-3명	3381	34.3	
	4-6명	5750	58.4	
	7-9명	708	7.2	
	10-12명	8	0.1	
자녀 근접성	연락빈도 가장많은 비동거 자녀와의 거주지 거리	걸어서 10분 이내	629	6.4
		걸어서 10분 이상 30분 이내	799	8.1
		자동차로 30분 이내	2027	20.6
		자동차로 30분 이상 1시간 이내	1943	19.7
		자동차로 1시간 이상 2시간 정도	1696	17.2
		자동차로 2시간 이상 3시간 정도	1092	11.1
		자동차로 3시간 이상	1580	16.0
		해외거주	81	0.8

변인		범주	빈도(명)	백분율(%)
왕래빈도 가장 많은 비동거 자녀와의 거주지 거리		걸어서 10분 이내	716	7.3
		걸어서 10분 이상 30분 이내	885	9.0
		자동차로 30분 이내	2399	24.4
		자동차로 30분 이상 1시간 이내	2103	21.4
		자동차로 1시간 이상 2시간 정도	1686	11.1
		자동차로 2시간 이상 3시간 정도	991	10.1
		자동차로 3시간 이상	1025	10.4
		해외거주	42	0.4
자녀로부터의 경제적 지원	정기적 현금지원	없음	7936	80.6
		있음	1911	19.4
	비정기적 현금지원	없음	3791	38.5
		있음	6056	61.5
	현물지원	없음	8567	87.0
		있음	1280	13.0
자녀로부터의 서비스 지원	정서적 지원	전혀 그렇지 않다	499	5.1
		그렇지 않은 편이다	1722	17.5
		그런편이다	6518	66.2
		매우 그렇다	1109	11.3
	도구적 지원	전혀 그렇지 않다	2511	25.5
		그렇지 않은 편이다	3390	34.4
		그런편이다	3458	35.1
		매우 그렇다	488	5.0
	신체적 지원	전혀 그렇지 않다	2295	23.3
		그렇지 않은 편이다	2912	29.6
		그런편이다	3830	38.9
		매우 그렇다	810	8.2
IADL		완전자립(평균점수 1이상 1.5미만)	8966	91.1
		부분도움(평균점수 1.5이상 2.5미만)	720	7.3
		완전도움(평균점수 2.5 이상)	161	1.6

(N=9847)

## 2) 상관관계 분석

각 변수들의 상관관계는 <표 2>와 같다.

결혼상태, 금융자산, 월 소득, 입주형태, 생존 자녀수, 자녀와의 근접성, 자녀로부터의 경제적 지원, 자녀로부터의 서비스 지원, 노인의 독립적인 삶의 기대감과 노인의 경제적 하향이전은 정적(+) 상관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성별, 연령, 종교, 교육수준, IADL과 노인의 경제적 하향이전은 부정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성별, 결혼상태, 종교, 교육수준, 월 소득, 입주형태, 자녀로부터의 서비스 지원, 독립적인 삶의 기대감, 노인의 경제적 하향이전과 노인의 서비스 하향이전

은 정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연령, 자녀와의 근접성, IADL과 노인의 서비스 하향이전은 부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각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성별	1															
연령	.049 **	1														
결혼 상태	-.460 **	-.282 **	1													
종교	.241 **	-.010	-.113 **	1												
교육 수준	-.412 **	-.249 **	.350 **	.004	1											
금융 자산	-.178 **	-.069 **	.041 **	-.038 **	.153 **	1										
월 소득	-.307 **	-.132 **	.147 **	-.024 *	.353 **	.183 **	1									
입주 형태	-.077 **	-.028 **	.175 **	-.034 **	.057 **	.063 **	.083 **	1								
자녀 수	.083 **	.265 **	-.076 **	-.033 **	-.225 **	-.018	-.071 **	.102 **	1							
자녀 근접성	.031 **	.037 **	-.015 **	-.025 *	-.090 **	.011	-.056 **	.018	.026 *	1						
경제수혜 <sup>1</sup>	.049 **	.064 **	-.096 **	.001	-.094 **	.102 **	.019	.058 **	.152 **	.061 **	1					
서비스수혜 <sup>2</sup>	.039 **	.001	.009	.038 **	-.005	.012	.019	.066 **	.071 **	-.197 **	.075 **	1				
IADL	-.004	.266 **	-.041 **	-.028 **	.093 **	-.106 **	-.086 **	-.023 *	.080 **	.008	-.051 **	.000	1			
독립 기대감	-.233 **	-.312 **	.227 **	-.015	.224 **	.125 **	.215 **	.090 **	-.084 **	-.012	.024 *	.057 **	-.364 **	1		
경제적 하향 이전	-.047 **	-.105 **	.100 **	-.050 **	-.028 **	.085 **	.111 **	.146 **	.087 **	.112 **	.158 **	.089 *	-.096 **	.203 **	1	
서비스 하향 이전	.077 **	-.124 **	.058 **	.077 **	.056 **	.004	.036 **	.061 **	-.011	-.188 **	-.003	.693 **	-.115 **	.165 **	.083 **	1

\*p<.05, \*\*p<.01, \*\*\*p<.001 1) 경제수혜: 자녀로부터의 경제적 지원 2) 서비스 수혜: 자녀로부터의 서비스 지원

### 3) 노인의 독립적 삶의 기대감이 세대 간 하향이전에 미치는 영향

노인의 독립적인 삶의 기대감이 자녀로의 하향이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표 3>, <표4>와 같았으며 다중공선성 검사결과는 분산팽창계수(VIF)가 10이하로 분포하여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노인의 독립적인 삶의 기대감이 노인의 하향이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노인의 독립적인 삶의 기대감 정도는 노인의 경제적 자원 하향이전 정도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beta = .152, p < .001$ ), 회귀모형은 F값이 99.428, 유의수준  $p < .0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R<sup>2</sup>값은 .123으로 종속변수 전체변량의 12.3%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노인의 독립적인 삶의 기대감 정도는 노인의 서비스 자원 하향이전 정도에도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beta = .093, p < .001$ ), 회귀모형은 F값이 769.499, 유의수준  $p < .0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R<sup>2</sup>값은 .522로 종속변수 전체변량의

52.2%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노인의 독립적 삶의 기대감과 자원의 하향이전

	비표준 화 계수	표준화 계수	경제적 하향이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서비스 하향이전
	B	β	P		B	β	P
(constant)	-.191		.004**	(constant)	.938		.000***
성별	.011	.014	.248	성별	.130	.109	.000***
연령	-.005	-.074	.000***	연령	-.005	-.052	.000***
결혼상태	.062	.076	.000***	결혼상태	.054	.044	.000***
종교	-.027	-.034	.001**	종교	.033	.028	.000***
교육수준	-.029	-.107	.000***	교육수준	.014	.036	.000***
금융자산	.033	.038	.000***	금융자산	-.012	-.009	.221
월소득	.000	.091	.000***	월소득	.000	.003	.691
입주형태	.066	.091	.000***	입주형태	.011	.010	.150
생존자녀수	.018	.071	.000***	생존자녀수	-.008	-.022	.004**
자녀근접성	.029	.120	.000***	자녀근접성	-.016	-.044	.001**
경제수혜	.075	.120	.000***	경제수혜	-.044	-.047	.000***
서비스수혜	.048	.081	.000***	서비스수혜	.598	.678	.000***
IADL	-.018	-.015	.144	IADL	-.112	-.062	.000***
독립기대감	.082	.152	.000***	독립기대감	.075	.093	.000***
R <sup>2</sup>	.124			R <sup>2</sup>	.523		
ΔR <sup>2</sup>	.123			ΔR <sup>2</sup>	.522		
F(P)	99.428(.000)			F(P)	769.499(.000)		

\*p<.05, \*\*p<.01, \*\*\*p<.001

〈표 4〉 노인의 경제적·신체적·심리적 독립적인 삶의 기대감과 자원의 하향이전

	비표준 화 계수	표준화 계수	경제적 하향이전		비표준 화 계수	표준화 계수	서비스 하향이전
	B	β	P		B	β	P
(constant)	-.228			(constant)	.804		.000***
성별	.014	.018	.135	성별	.127	.106	.000***
연령	-.005	-.069	.000***	연령	-.005	-.051	.000***
결혼상태	.063	.078	.000***	결혼상태	.053	.044	.000***
종교	-.025	-.032	.001**	종교	.031	.025	.000***
교육수준	-.025	-.093	.000***	교육수준	.009	.023	.008**
금융자산	.034	.040	.000***	금융자산	-.013	-.010	.160



월소득	.000	.096	.000***	월소득	.000	.000	.965
입주형태	.068	.094	.000***	입주형태	.009	.008	.239
생존자녀수	.017	.069	.000***	생존자녀수	-.008	-.021	.004**
자녀근접성	.028	.118	.000***	자녀근접성	-.015	-.043	.000***
경제수혜	.076	.121	.000***	경제수혜	-.045	-.048	.000***
서비스수혜	.050	.085	.000***	서비스수혜	.596	.675	.000***
IADL	-.019	-.015	.144	IADL	-.104	-.058	.000***
경제적 독립기대감	.042	.114	.000***	경제적 독립기대감	.025	.046	.000***
신체적 독립기대감	.042	.090	.000***	신체적 독립기대감	.014	.020	.010*
심리적 독립기대감	-.011	-.015	.181	심리적 독립기대감	.083	.079	.000***
$R^2$	.125			$R^2$	.526		
$\Delta R^2$	.125			$\Delta R^2$	.525		
F(P)	88.703( .000)			F(P)	681.278( .000)		

\*p<.05, \*\*p<.01, \*\*\*p<.001

##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2008년도 노인복지 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65세 이상 노인 9,847명을 대상으로 노년기 독립적인 삶의 기대감 정도가 노인의 하향이전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노인의 독립적인 삶의 기대감 정도는 노인의 하향이전 정도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의 독립적인 삶의 기대감 정도가 높을수록 자녀에게 경제적·서비스 하향이전을 많이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상호호혜적 교환에 입각하여 세대 간 이전을 설명하는 교환이론적 관점보다는 자녀가 필요로 할 때 노인의 하향이전이 증가한다고 보는 이타주의 이론적 관점이 더 설명력을 갖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물론, 이타주의 이론적 관점이 노년기 독립적인 삶의 기대감이 높을수록 노인의 하향이전이 증가한다는 결과를 직접적으로 설명해 준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부분의 노인들이 자녀의 성공을 바란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노인들은 자녀들의 성공을 위해 필요하다면 부담감을 줄여주기 위해 노인들 자신은 높은 독립적인 삶의 기대감을 가질 뿐만 아니라 자녀들로의 하향이전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노년기 독립적인 삶의 기대감을 경제적·신체적·심리적 독립적인 삶의 기대감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경제적·신체적 독립적인 삶의 기대감은 노인의 경제적·서비스 하향이전에 정적(+)인 영향

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심리적 독립적인 삶의 기대감은 노인의 서비스 하향이전에는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경제적 하향이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검토에서 경제적·심리적·심리적 독립적인 삶의 기대감 모두 노인의 경제적·서비스 하향이전에 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측했던 것과는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 이러한 차이는 대부분의 연구대상자들이 월세로 살고 있고, 월평균 소득 또한 50만원 미만이라는 좋지 않은 경제적 상태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노인들이 마음으로는 자녀들에게 경제적 자원을 이전해주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경제적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경제적 하향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인들의 독립적인 삶의 기대감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사회활동 및 노동시장참여, 공적 돌봄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노인 정책 및 서비스가 보완된다면 노인들은 자녀들에게 경제적·서비스 측면의 도움을 보다 많이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은 현재 노동시장 참여 기회의 부족 및 불안정성으로 인한 자녀들의 불확실한 경제적 지위를 조금이나마 완화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것은 노인세대와 자녀세대 간의 세대 간 연대를 더욱 강화시켜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본 연구가 갖는 한계는, 노인의 하향이전 연구를 위해서는 현 시점에서의 자원이전 뿐만 아니라 과거에 이루어졌던 자원이전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는 종적인 연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자료의 한계로 횡적연구에 그쳤다는 점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한계 때문에 경제적 하향이전을 검증하는 변수로 정기적·비정기적 현금 이전 및 현물 이전 여부를 살펴보는데 그쳤지만, 구체적인 금액을 사용한다면 노인의 경제적 하향이전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들을 보완하여, 세대 간 자원이전에 대한 종 단적 자료 구축을 통한 종적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 참고문헌

- 고선강. 2005. "미국 성인자녀의 노부모에 대한 자원이전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1): 187-195.
- 국토연구원. 2008. "2007년도 주거실태조사". KDI경제정보센터.
- 권중돈. 2000. "노년기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노년학』 20(3): 61-76.
- 권현수. 2009. "노인의 사회참여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우울, 주관적 건강상태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생활과학회지』 18(5): 1-14.
- 김미령. 2005. "여성노인의 고독감에 미치는 영향연구". 『정신보건 사회사업』 21: 90-111.
- 김욱. 2006. "경로당 이용노인의 자아존중감과 영향요인 연구". 『노인복지연구』 32: 271-293.
- 김유경. 2000. "세대 간의 유대관계와 노인의 삶의 질과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노부모와 성인자녀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태현. 2000. "노인과 가족 부양의 현황과 문제점". 국회노인복지 정책연구회·대한노인회. 『노인복지 정책 관련 국민대토론회』. 국회노인복지 정책 연구회. pp. 33-54.

- 김정석·김익기. 2000. "세대 간 지원교환의 형태와 노인들의 생활만족도".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20(2): 155-168.
- 김종숙. 1987. "한국노인의 생활만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진. 2008. "한국 노부모와 성인자녀 간 지원행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민기채. 2008. "노인의 비공식적 지원제공과 관계망 특성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민무숙. 1995. "노모와 성인 딸/며느리 간의 상호원조 유형이 부양부담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15(1): 74-90.
- 박경숙. 2003. "세대 관계의 다양성과 구조". 『한국사회학』 36(2): 61-94.
- 박지영. 2008. "노인도에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검증: 노인우울정서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배나래·박충선. 2009. "노년기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적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9(2): 761-779.
- 배진희. 2009. "고령노인의 일상생활기능저하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사회활동참여와 노인학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29(1): 353-368.
- 배한나. 2006. "교회 노인교육 프로그램이 노인의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보건복지가족부. 2009. "2008 노인복지 실태조사: 전국노인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보건복지가족부.
- 보건복지부. 2002. "마드리드 고령화국제행동계획".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 국제협력담당관실.
- 서병숙·장선주. 1990. "노부모와 기혼자녀 간의 생활교류 연구: 아들동거 노인과 딸 동거노인의 비교". 『대한가정학회지』 28(3): 171-186.
- 신성은. 2007. "노인의 교회활동참여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숭실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 양순미·홍성례·홍승자. 2004. "농촌노인의 사회활동과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농촌사회』 14(2): 145-178.
- 우순애. 2002. "집단미술치료가 여성노인의 우울 및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원영희. 1995. "동·별거 형태가 한국노인의 심리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15(2): 97-116.
- 윤정자. 2003. "노인부양의 사회적지지에 관한연구".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종주. 1994. "노인의 사회참여: 그 현황과 전망". 『한국노년학회』 14(1): 168-178.
- 윤현숙. 2003. "노부모와 자녀 간의 지원교환이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23(3): 15-28.
- 윤혜진. 2001. "노인의 종교활동 정도와 우울에 관한 연구: 복지관 이용노인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가옥·우국희·최성재. 2004. "노인독립 담론에 대한 비판적 성찰: 독립과 의존의 재개념화". 『한국사회복지학』 56(1): 5-22.
- 장인협·우국희. 2007. 『케어·케이스매니지먼트』. 서울대학교 출판부.
- 정경희. 2005. "2004년도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주요조사결과와 정책적 함의". 보건복지포럼. pp. 101: 49-65.
- 정병은. 2007. "세대 간 지원 교환의 호혜성에 관한연구: 서울지역 노인자료의 분석". 『한국노년학』

- 27(2): 503-5018.
- 정일영. 2008. "세대 간 지원교환이 노인의 고독감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병은·신화용. 1992. "사회교환론적 관점에서 본 맞벌이 가족의 성인딸/며느리와 노모의 관계". 『한국노년학』 12(2): 83-98.
- 최성재·장인협. 2006. 『노인 복지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 통계청. 2010. "2010년 사회조사".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
- 한민아. 2004. "세대 간 지원 교환관계와 성인자녀의 심리적 복지감". 서울대학교 대학원 생활과학 석사학위논문.
- 한민아·한경혜. 2004. "세대 간 지원 교환유형과 성인자녀의 심리적 복지감". 『한국가족관계학회지』 9(1): 135-152.
- Chung, Soondool and Park, Soo-Jung. 2008. "Successful in depressive symptoms among older people in South Korea." *Ageing & Society* 28: 1061-1074.
- Clark, S., Long, M., and Schiffman, L. 1999. "The Mind-Body Connection: the Relationship among physical activity level, life satisfaction and cognitive age among mature females." *Journal of Social Behavior & Personality* 14(2): 221-241.
- Cox, D. 1987. "Motives for private income transfer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5: 508-546.
- Cox, D. and Rank, M. 1992. "Inter-vivos transfers and intergenerational exchang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74(2): 305-314.
- Dwyer, J. W. and Coward, R. T. 1991. "A Multivariate Comparison of Involvement of Adult Sons Verse Daughter in the Care of Impaired Parents." *Journal of Gerontology: Social Science* 46(5) 259-269.
- Ellison, C. G. 1991. "Religious involvement and subjective well-being."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2: 80-99.
- Frankenberg, Elizabeth., Lillard, Lee and Willis, Robert J. 2002. "Patterns of intergenerational transfers in Southeast Asia."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5(1): 35-43.
- Freedman, V., Wolf, D. A., Soldo, B. J. and Stephen, E. H. 1991. "Intergenerational transfer: A question of perspective." *The Gerontologist* 31: 640-647.
- Grundy, E. 2005. "Reciprocity in relationships: socio-economic and health influences on intergenerational exchanges between Third Age parents and their adult children in Great Britain." *The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56(2): 233-255.
- Hermalin, A. I. 1999. "Challenges to comparative research on intergenerational transfers." *Southeast Asian Journal of Social Science* 27(2): 9-20.
- Hunter, K. L., and Linn, M. W. 1981. "Psychosocial differences between elderly volunteers and non-volunteers."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12(3): 205-213.
- Lee, Gary R. and Ellithorpe, Eugene. 1982. "Intergenerational exchange and subjective well-being among the elderly."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44(1): 217-224.
- Lee, Gary R., Netzer, Julie K. and Coward, Raymond T. 1995. "Depression among older parents: The role of intergenerational exchang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7: 823-833.
- MacDonald, M. M. 1989. "Family background, the life cycle, and inter-household transfers." *NSFH working paper* 13: 1-51.

- Marks, N. F. 1996. "Caregiving across the lifespan: National prevalence and predictors." *Family Relations* 45: 27-36.
- McGarry, K. and Schoeni, R. F. 1997. "Transfers behavior within the family: Results from the assetent worth and health dynamics study." *The Journal of Gerontology Series B*, 52B: 82-92.
- McGarry, K. 1999. "Intervivos transfers and intended bequests." *The Journal of Public Economics* 73: 321-351.
- Medley, M. L. 1976. "Satisfaction with Life among Persons Sixty-Five Years and Older." *Journal of Gerontology* 31(4). 448-454.
- Mehta, Kalyani. 1999. "Intergenerational Exchanges: Qualitative evidence from Singapore." *Southeast Asian Journal of Social Science* 27(2): 111-122.
- Mutran, Elizabeth and Reitzes, Donald C. 1984. "Intergenerational support activities and well-being among the elderly: A convergence of exchange and symbolic interaction perspectiv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9: 117-130.
- Myers, Jane E. 1988. "The mid/late life generation gap: Adult children with aging parents."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66: 331-335.
- Koenig, H. G. 1993. "Religion and aging." *Review in Clinical Gerontology* 3: 195-203.
- Kohli, Martin. 1999. "Private and public transfers between generations: Linking the family and the state." *European societies* 1(1): 81-104.
- Kondo, N., Kazama, M. Suzuki, K., and Yamagata, Z. 2008. "Impact of mental health on daily living activities of Japanese elderly." *Preventive Medicine* 46(5): 457-462.
- Peggy, A. T., and Lyndi, N. H. 2001. "Volunteer work and well-being."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42(2): 115-131.
- Pezzin, L. E. and Schone, B. S. 1999. "Parentan marital disruption and intergenerational transfers: an analysis of lone elderly parents and their children." *Demography* 34: 297.
- Plath, D. 2008. "Independence in Old Age: The Route to Social Exclusion?." *British Journal of Social Work* 38: 1353-1369.
- Plath, D. 2009. "International Policy Perspectives on Independence in Old Age." *Journal of Aging & Social Policy* 21: 209-223.
- Secker, J., Hill, R., Villeneau and Parkman, S. 2003. "Concept forum Promoting independence: but promoting what and how?." *Ageing & Society* 23: 375-391.
- Sirven, N., and Dedrand, T. 2008. "Social participation and healthy ageing: An international comparison using SHARE data." *Social Science & Medicine* 67: 2017-2026.
- Soldo, B. J. and Hill, M. S. 1995. "Family structure and transfer measures in health and retirement survey: Background and overview." *The Journal of Human resources* 30S: 108-137.
- Steverink, N. 2001. "When and why frail elderly people give up independent living : The Netherlands as an example." *Ageing & Society* 21: 45-69.
- Turner, J. H. 1986. *The Structure of Sociological Theory*. Chicago: Dorsey Press.
- Woods, B. 1999. "Promoting well-being and independence for people with dementia." *International Journal of Geriatric Psychiatry* 14: 97-109.

## The Study on the Impact of the Expectation of Independent Life in Old Age on Intergenerational Downward Transfer of Korean Old People

**Kang, Yoo-Gyoung**

(Sungkyunkwan University)

**Park, Seung-Hee**

(Sungkyunkwan University)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xpectation of independent life in old age and intergenerational downward transfer of Korean old people. It was focused on old people who did not live with their adult children by using the raw data of 『2008 the Korean study of Welfare Services for the Elderly』. The data were analysed b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showed the degree of the expectation of independent life in old age had positive effect on economic and service downward transfer of old people. Concretely, the degree of the expectation of economic and physical independence had positive effect on economic and service downward transfer of old people. The degree of the expectation of emotional independence had positive effect on service downward transfer of old people, while it had no effect on economic downward transfer.

Key words: the expectation of independent life, downward transfer of old people, economic downward transfer, service downward transfer

[논문 접수일 : 11. 01. 02, 심사일 : 11. 01. 20, 게재 확정일 : 11. 03. 08]